우리의 '아름다움' 발견하고 인정해야

전문가칼럼 - 아방가르드 음악

박준영
작곡과
교수

인류문명의 역사가 이어져온 이래로 문화는 인류의 일기장과도 같이 당시의 사회를 그때그때 반영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해결책이 다시금 새로운 문제를 낳는 것은 인류사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음악사도 마찬가지였다. 후기 낭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쇤베르크는, 이후 철저한 비 대중적 예술어법에 빠져들게 되며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쇤베르크의 시대는 레코드의 발명으로 음악이 문화 산업화되던 시기였다. 문화 산업주의자들은 당연히 잘 팔리는 음악을 만들기를 원했고 이를 작곡가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쇤베르크는 단지 예술을 하겠다는 일념 아래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12음 음렬 음악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주의 혹은 문화상업주의에 저항했다.

순수한 아름다움
쇤베르크의 '아방가르드'

이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치하의 독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태도로 음악활동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그와 비엔나 악파를 당대 '아방가르드음악가'라 칭하지 않을 수 없겠다. 쇤베르크와 비엔나 악파의 음악이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권에서는 이들의 음악이 인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 대중적 음악이라는 이유로 비토 되었고, 자본주의권에서는 비 상업적 음악이라는 이유로 비토 되었다. 하지만 예술음악이 또는 예술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당시 사회에서의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반영이고 주장이며 시대정신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때론 엄혹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도 양지에서 곡학아세하는 예술은 영속성이 없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그 어떤 미학도 궁극적으로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쇤베르크와 비엔나 악파의 음악적 '태도'는 오늘날 비 대중적, 비 상업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음악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방가르드 음악예술이 자생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필자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한국은 분단된 작은 나라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문화는 다른 분야보다 더 외세 의존적이고, 사대적이기까지 하다. 선진국에서 인정받아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풍토를 생각해보자. 우리 음악인이라고 인정받는 정명훈, 정경화, 장영주, 조수미, 윤이상, 진은숙 등 수 많은 유명 클래식 음악가들은, 사실 혈통만 한국 사람일 뿐 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 진배없다. 다만 외국에서 인정받았으니 우리도 비평 없이 인정하는 구조일 뿐이다. 이것이 문화적 식민구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풍토, 그리고 문화예술을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나라 예술은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없고 다만 선진국의 미학만 전달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토대도 없는 마당에 아방가르드 음악예술을 논한다는 것은 난센스일 수밖에 없다.

사회모순 질타하고
새 미래 논해야 건강한 예술

요사이 언론으로부터 언급되고 있는 소위 '조영남 사태'를 보면, 그가 했다는 예술은 사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화상이고 수준이며 우리 사회의 리얼리티를 대변한다 하겠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머리 좀 있고 재능 좀 있다는 그가 해외로부터 온 컨셉 예술에 국내의 극심한 상업주의를 더해 힘없는 사람을 등치고 예술을 빙자한 장사를 해먹었고, 그 와중에 '재수 없이' 걸려서 운 없는 그를 대중들이 군중심리로 매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운 국내 예술가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대체로 이러한 일은 법조계든 의학계든 정치권이든 어느 분야나 비일비재하며, 계속 반복 진행되어 왔고, 재수 없는 사람들이 군중으로부터 몰매 한번 맞고 또 잊어버리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 왔다.

100년 전 유럽의 아방가르드 음악예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술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 사회의 모순을 질타하며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 할 때 건강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됨을 보았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유럽과 많이 다르다. 시대도 점점 가속도가 붙듯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알파고 시대'를 맞아 예술에 대한 근원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인간은 버릴 리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와 사회에서 건강한 예술가들이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예술적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듯 치열한 작업을 하는 많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화되었다는 척도로 기능한다 하겠다. 어쩌면 현대사회는 예술가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이름 없는 예술가들이 순수라는 이데올로기에 잘못 걸려 굶어 죽을 듯 우리 사회를 그려 가고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랄 뿐이다.

참여마당

김동선
(평화의전당 부관장)

멋진 대학 만들기

5월은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이다. 5월의 중간, 감사와 존경의 '스승의 날'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축제, 대동제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학의 5월은 부끄러운 달이다. 그동안 우리대학의 외형적인 힘의 팽창은 여기에 상응할 만한 정신력의 성장이 따르지 못했다. 겉치레와 출세지향적인 가치, 교수와 직원의 수직적인 동면형 행정, 먹고 마시는 놀이 문화축제에서는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답을 찾기 어려워 졌다. 혼동하기 쉬운 명예심과 허영심, 가치의 부재, 자기 상실의 시대. 요즘 우리 대학들의 현실이다.

존경과 감동은 시대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다.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바뀌어야 한다. 형평이란 무엇인가. 한 사회가 그 성원에게 혜택과 부담을 고루 나누고 있는가. 사람들끼리 서로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 대학과 교수가 있다.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대학이 변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

아직도 대학의 칸막이·층계문화 만연
결국 우리 사회의 역기능 유발하는 원인이 돼
이제는 질서와 본분 지키는 멋진 대학 될 때

스승의 날, 학생의 존재로 충분하다. 대학에 생산성을 주는 것은 학생이다. 교권은 가장 큰 선물이다. 대학의 품위와 탁월함을 고취하는 단초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입학이후 졸업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들은 졸업 후에도 동문으로서 모교에 변함없는 애정을 전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뇌하는 그들에게 고마움과 꿈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 카네이션과 선물을 받는 대신 제자들을 위해 학생식당으로 스승들이 마음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대학문화는 요원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칸막이와 층계문화로 점철되어 온 대학의 생산성은 사회로 역류된다. 학생들은 배운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답습한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유발한다. 부끄러운 대학의 자화상. 우리사회의 도덕적 잠재력의 한계와 윤리를 다시 묻게 된다. 이 또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다. 모두의 질서, 기본과 본분을 지키는 대학사회, 마음가짐과 정신적 성숙이 필요하다. 잘 나가는 대학보다는 멋진 대학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인이나 사회나 자신의 모순과 부끄러움을 고쳐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철저한 자기성찰, 자기개혁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대학 주변의 비합리성과 부끄러움을 씻어 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우리가 꾸미고 있는 역사에 대한 책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5월이다.

▶1면에서 이어짐

인간이 지닌 탁월성의 실현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인간다운 인간이 추구하는 '좋은 삶'이다. 인간다운 인간이 '좋은 삶'을 살고 난 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서의 행복,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좋은 삶'은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바랄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아 온 사람만이 바라 수 있는 삶의 목적이 행복인 셈이다. 이 문장에서 발견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이다. 이 윤리적 질문 때문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론의 핵심이 등장하게 된다. 이 책은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주는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윤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아버지는 단지 개인적인 '좋은 삶'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선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을 둘러 싼 공동체가 '좋은 삶'을 살아갈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동의 선을 구현하는 일에 무심하다면, 다시 말해 정의롭지 않다면, 개인은 결코 행복을 바랄 수 없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정의는 이렇게 연결된다. 이 사회의 정의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솔론(Solon)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

행복이란 '좋은 삶'은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바랄 수조차 없는 것이다.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은 이번 순서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감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